

K좀비 재출격... '#살아있다' → '반도' 도 흥행 이어갈까

'좀비'라는 소재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
'#살아있다' 이달 24일, '반도' 7월 개봉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K좀비' (한국형 좀비 캐릭터)가 신작 영화 '#살아있다' (감독 조일형)와 '반도' (감독 연상호)로 재출격한다. 'K좀비'가 울림 극장가에 단비를 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7월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의 신작 '반도'는 전작 '부산행'에서 4년이 흐른 뒤 폐허가 된 땅에서 거대한 좀비 군단과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전작 '부산행'이 'K좀비'로 이름을 알리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반도'에 대한 기대감이 일제같이 높았다. '반도' 역시 '간 2020 오프쇼 셀렉션'의 공식 초청작으로도 선정되며 주목 받고 있다.

공개된 시놉시스에는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정석(강동원 분)과 나라 전체를 휩쓴 재난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들의 존재를 밝힌다. 인간성을 상실한

631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절체절명의 순간, 정석을 위기에서 구해 준 민정(이정현 분) 가족은 4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눈길을 끈다. 또한 '부산행'에서는 부산행 열차 내부와 기차역을 중심으로 좀비와 사투를 벌였다면, 이번에는 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더욱 확장된 좀비물을 예고한다.

포스터와 예고편에서는 우선 '반도'속 좀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폐허가 된 땅의 주인이 되어 더욱 거대해지고 강렬해진 좀비 군단의 모습이 돋보이며, 군단을 이룬 좀비가 선보일 액션이 스틸러의 묘미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되돌아온 정석과 살아남은 민정의 가족이 한층 잔혹한 모습을 한 좀비 군단과 어떻게 맞설지 기대감을 높인다.

'반도'에 앞서 오는 24일 개봉하는 '#살아있다'는 원인불명 증세로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하며 통제 불가능에 빠진 가운데,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모든 것이 끊긴 채 홀로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생존 스틸러다.

준우(유아인 분)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났다가 가족과의 연

락이 끊긴 채 아파트에 고립된 사실을 깨닫는다. 지극히 평범한 인물인 준우는 부족한 물과 음식, 불안감과 공포, 외로움까지 겪으며 영화적 긴장감을 높인다. 반면 유빈(박신혜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

하게 계획해 생존 전략에 돌입한다. 정반대의 성격인 두 사람이 맞으면 아파트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성공할지 지켜보게 된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불안감에 휩싸인 준우와 계획적인 유빈의 모습과 함께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들 역시 일반적인 좀비와 마찬가지로 팔, 다리 등 관절이 꺾이고 부자연스럽게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색함 없이 구현된 '#살아있다'속 좀비는 '부산행'과 드라마 '킹덤'에 참여한 황효균 특수 분장감독의 수작업과 '부산행'에 참여한 디지털 아티어의 CG 작업이 만난 결과물이다.

이처럼 '반도'와 '#살아있다'는 좀비라는 소재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며 또 다른 'K좀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전년 관객을 넘기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개봉한 '부산행'과 '갯신드롬' 'K좀비 신드롬' 등 글로벌 흥행을 불러 일으킨 '킹덤' 시리즈에 이어 두 영화가 'K좀비' 흥행 바통을 이어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극장가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은다.

장기용x진세연x이수혁 "1인2역 쉽지 않았다"

KBS 2TV 월화드라마 '본어게인' 막바지 향해



'본어게인'의 세 주역 장기용, 진세연, 이수혁이 뜻깊은 종영 소감을 전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본어게인' (극본 정수미/ 연출 진형욱, 이현석/ 제작 UFO프로덕션, 몬스터유니온)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세 남녀의 환생 미스터리 멜로를 그려내며 짝사랑 전개를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용(공지철/천종범 역), 진세연(정하은/정사빈 역), 이수혁(차형빈/

김수혁 역)이 전생과 현생, 두 시간대 속도 인물들을 연기하며 얽히고설켜 운명의 종착지로 향하는 바, 7일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먼저 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 본 적 없는 복잡다단한 두 인물을 맡아 한층 성숙해진 연기를 선보인 장기용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1인 2역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끝마칠 수 있었다"며 처

음 도전한 1인 2역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희 드라마 '본어게인'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또 새로운 '배우 장기용'의 모습으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분위기를 잘딱같이 소화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 내정하은, 정사빈 그 자체였던 진세연은 "약 4개월 동안 사랑스러운 하은이와 사빈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다. '본어게인'과 하은이, 사빈이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한 편에 끝까지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순애보 형사 차형빈 '로봇남' (로맨스 소설을 읽고 나온 남자)의 정석인 검사 김수혁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이수혁 역시 "벌써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다니 실감이 안 난다. 함께한 배우들, 스텝들과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 오랜만에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했다. 올해는 더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달라"며 나다른 감회를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본어게인'은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시영, 빌딩 두채 동시 매각해 40억 차익

매입자는 야구인 김성근

배우 이시영 부부가 꼬마빌딩 두채를 동시에 매각,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시영 부부는 나란히 한 채씩 소유하고 있던 성수동 꼬마빌딩 매각을 한 번에 묶어 진행, 4년 만에 시세차익 40억 75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2016년 9억 8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약 23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성수동 1가 소재 꼬마빌딩(대지 49.91평 연면적 146.82평)을 이달 43억 원에 매각했다.

또한 바로 뒤편에 위치한 남편 조승현씨 소유 3층 꼬마빌딩(대지 48.1평 연면적 88.83평) 매각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승현씨는 이시영과 결혼 당시인 2018년 4월, 17억 원에 매입한 해당 건물을 37억 원에 매각했다.

이번 계약의 특이점은 이 두채의 건물을 모두 함께 산 사람이 김성근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라는 점이다.

김성근 감독은 이시영 부부의 꼬마빌딩 두채를 80억 원에 매입, 한 채는 아내 오모씨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외식 사업가 조승현 대표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녀의 남편 조승현씨는 20대 때부터 외식사업에 뛰어들어 '영천영화', '팔자막장' 등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을 연달아 히트시킨 젊은 사업가로 언론에 종종 소개된 바 있다.

'온앤오프' 윤아, 일상 최초공개

'민낯+셀프 인테리어까지' 역시 만능캐

'온앤오프' 임윤아(소녀시대 윤아)의 반전 일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윤아는 지난 6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 데뷔 후 가장 긴 'OFF' 시간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방송 최초로 공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먼저 임윤아는 본업(ON) 광고촬영 현장에서 인형 같은 비주얼과 프로페셔널함으로 놀라움을 준 반면, 'OFF' 시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편안한 모습과 함께 화장을 지운 무결점 민낯으로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 이어진 'OFF' 시간에는 평소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임윤아가 17년 지기 친구의 공방을 페인트칠로 완벽히 꾸며 준 것은 물론 통역사와의 만남을 통해 수준급 중국어 실력과 더불어 중국어 회화 중급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윤아는 그동안 노래, 춤, 연기, 예능,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해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일상까지 선사, 다시 한번 임윤아의 '민능' 매력을 입증했다.

한편, 임윤아는 신문사를 배경으로 기자들의 생존과 양심, 그 경계의 달레마를 그리는 JTBC 드라마 '허쉬'에 인턴 기자 이지수 역으로 캐스팅돼 하반기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날로 먹는 부장님' 차태현 "신동엽 프로그램 날로 먹는다"

차태현이 '날로' 전 팬임을 인증했다. 6일 오후 방송된 tvN '날로 먹는 토요일-도레미마켓' (이하 '날로')에는 드라마 '변의수사'의 주인공 차태현과 이선빈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MC들은 "정말 행복한 게 차태현이 무려 2년 동안 '날로'를 꼭 시청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차태현은 "거의 첫 회부터 봤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헤리가 "왜요?"라며 의아해하자 차태현은 "재밌더라고"라며 웃었다.

차태현은 "딱 처음 프로그램을 봤을 때 동엽이 형이 날로 먹겠구나 싶었다"라며 "날로 먹으면 장수한다.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돌' 뮤비 1억뷰 돌파 방탄소년단 통산 24번째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피쳐링 니키 미나즈) 뮤직비디오가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지난 2018년 9월 공개된 팝가수 니키 미나즈가 등장하는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7일 오전 10시 58분께 조회 수 1억 건을 넘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통산 24번째 1억뷰 뮤직비디오로 한국 가수 최다 1억뷰 뮤직비디오 보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니키 미나즈가 피쳐링에 참여한 '아이돌'은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디지털 스페셜 트랙이다. 발매 전부터 방탄소년단과 니키 미나즈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 공개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1위에 오르며 음악성 역시 인정받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7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과 함께 유튜브가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 졸업식 '더 클래스 오브 2020'에 참여한다.